



사우디아라비아

I. 일반개황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면적 | 2,150천Km ² | G D P | 1,882억 달러('02) |
| 인구 | 2,352만 명 | 1 인 당 GDP | 8,003 달러('02) |
| 정치체제 | 왕정(정교일치) | 통화단위 | 사우디 리알(Riyal) |
| 대외정책 | 친 이슬람, 친 서방 | 환율(달러당) | 3.75(고정환율) |

- 전세계 매장량의 25%와 4%를 차지하는 원유(2002년 기준 확인매장량 2,618억 배럴) 및 천연가스(확인매장량 6조 2,000억 m³)를 보유한 에너지 자원 부국임. 또한, 세계 원유생산량의 11.8%, OPEC 생산량의 31.6%를 차지하고 있음.(2002년 기준)
- 최근 고유가로 성장, 수출, 재정 등 경제전반이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, 지나치게 석유 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상 문제점을 안고 있음. 또한, 빠르게 늘어나는 청년실업 부양을 위한 재정부담도 과중한 상태에 있음.
- 독재적인 왕정체제 유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체제불안이 커지고 있어,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안팎의 압력이 커지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 동향

- 경제성장률 : 낮은 유가와 생산량 조절을 위한 쿼터축소가 맞물리면서 1981~98년 중 동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1.3%의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였음. 1999년 이후에도 유가와 생산이 호조를 보였던 2000년과 2003년을 제외하곤 낮은 성장에 머물렀음.
- 2003년에는 이라크 전 이후 공급애로(이라크, 베네수엘라, 나이지리아의 생산지연)와

소비국 재고부족 등으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동국의 생산쿼터도 늘어난 데 힘입어 모처럼 4%대의 양호한 성장을 이룩했음.

- 물가 : 정부가 통화공급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주요 생필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1980년대부터 물가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.
- 재정수지 : 인프라 건설, 방위비 부담,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, 낮은 세율 적용 등으로 재정지출 부담은 막중한데 비해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 데 따라 1983년 이후 재정수지는 적자를 유지해 왔음.
- 유가와 원유생산이 호조를 보였던 2000년과 2003년에는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, 2001~02년의 재정적자폭도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았던 편임.

<표 1> 주요 국내경제지표

| | 단위: %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| 1999 | 2000 | 2001 | 2002e | 2003f |
| 경 제 성 장 륜 | -0.8 | 4.9 | 1.3 | 1.1 | 4.6 |
|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륜 | -1.6 | -0.8 | -0.4 | -0.5 | 0.1 |
| 재 정 수 지 / G D P | -6.0 | 3.2 | -3.9 | -2.8 | 3.8 |

자료: IFS 및 EIU.

2. 경제구조

- 세계최대 에너지자원 부국 : 동국은 세계최대 산유국이자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고, 1인당 GDP도 8,000달러를 넘는 중상위 소득국가임.
- 석유산업 의존도 과다 : 석유산업은 동국 GDP의 약 35%, 재정수입의 75%, 수출의 85%를 차지하고 있음. 수출과 재정지출이 각각 GDP의 약 40%, 27%를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, 사실상 석유에 의해 유지되는 경제임.
-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은 적극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가로막고, 경기침체를 반복하게 만드는 등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심화시켜 왔음.
 - * 사우디油 가격변동: \$14.9('88), \$23.7('90), \$15.8('94), \$20.6('96), \$12.8('98), \$28.5('00), \$24.5('01)
- 재정부담 과중 : 정부재정으로 제반 인프라 건설과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, 방위비, 생필품 보조, 복지비용(의료, 교육, 주택 등) 지출 등 막대한 경직성 비용을 떠안고 있음. 그 결과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.

- 국내차입을 통한 재정적자 보전으로 공공채무도 급속히 늘어났음. 1992년 GDP의 50%를 넘어선 공공채무는 1999년에 100%를 넘어섰고, 2000년 일시적으로 100%를 밑돌았으나 2001~02년에는 다시 100%를 넘어선 상태임.

3. 경제정책

- 동국 정부는 유가변동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경제의 점진적 개혁 정책 태도를 견지해 왔음. 개혁의 목표는 ① 석유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산업기반 다변화, ② 고용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임. 이 목표 달성을 통해 동국은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임.
- 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가스개발, 담수화사업, 전력 등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투자(외국인투자 포함) 유치가 강조되고 있음.
- 전반적인 민영화의 진전은 느린 편이나, 2002년 통신회사(STC)의 시장공개에 이어 2004년에는 국영은행인 NCB의 민영화가 예정되어 있으며, 공공기업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제정이 추진중임.
-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각종 인프라 사업 추진에 힘입어 향후 FDI의 증가와 비석유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, 동국 정부도 민영화 수익으로 적극적인 공공부채 감축에 나설 것으로 보임.

4. 대외거래 동향

-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반복 : 상품수지는 항상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, 서비스수지(석유기업에 대한 수수료 등)와 이전수지(근로자들의 본국 송금)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경상수지는 유가변동에 따라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고 있음. 한편, 민간부문의 대외거래 상황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동국의 소득수지는 오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.
- 2003년 경상수지 흑자 폭 크게 확대 : 사우디의 원유생산량은 2002년 평균 770만 b/d에서 2003년에 평균 870만 b/d(최대 900만 b/d)로 증가하고 사우디유의 가격도 2002년 평균 \$23.8/b에서 2003년에는 평균 \$27.5/b(전망)로 상승함에 따라 2003년에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, 경상수지도 GDP 대비 12%를 넘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였음.

- 외채지표 양호 : 동국의 외채는 인프라개발 프로젝트와 연계된 것으로, 외채규모는 GDP의 15% 내외, 총수출의 30~35%이고, DSR도 10%를 넘지 않는 등 제반 외채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 다만,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35% 전후로 높은 수준이나, 단기외채 대부분이 정상적인 무역금융에서 발생한 것임.

<표 2> 주요 국제경제지표

단위: %, 백만 달러

| | 1999 | 2000 | 2001 | 2002e | 2003f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경 상 수 지 | 412 | 14,336 | 9,366 | 11,696 | 25,300 |
| 경 상 수 지 / G D P | 0.3 | 7.6 | 5.1 | 6.2 | 12.2 |
| 상 품 수 지 | 25,039 | 49,843 | 39,418 | 42,037 | 56,000 |
| 수 출 | 50,757 | 77,584 | 68,064 | 71,679 | 86,400 |
| 수 입 | 25,718 | 27,741 | 28,645 | 29,642 | 30,400 |
| 외 환 보 유 액 | 16,997 | 19,585 | 17,596 | 20,610 | 21,860 |
| 총 외 채 잔 액 | 31,209 | 29,883 | 27,385 | 28,750 | 28,000 |
| 총 외 채 잔 액 / G D P | 19.4 | 15.8 | 14.7 | 15.5 | 13.6 |
| D. S. R. | 9.4 | 8.2 | 8.4 | 7.9 | 6.5 |

자료: IFS, GDF, EIU 및 IIF.

III. 정치·사회분야

1. Al Saud 왕정독재체제 유지

- 동국은 Al Saud 왕실이 ulema(회교율법학자)집단의 지지 하에 국가를 통치하는 정교 일치국가이며, 선거, 정당, 및 의회제도가 금지된 왕정독재체제가 유지되고 있음.
- 건강이 악화된 Fahd 국왕을 대신해 이복동생인 Abdullah 왕세자가 1996년부터 국정을 맡고 있으며, 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 왔음.
- 그러나 대미, 대이스라엘 등 대외정책에 대한 집권세력 내 이견이 존재하며, Fahd 국왕 유고시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왕실 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.

2. 대미관계 다소 소원

- 동국은 안보상 이유로 미국과는 전통적 맹방관계를 유지해 왔으나, 9. 11 테러사태 이

- 후 미국 내 사우디아와의 관계재고 목소리가 나오고, 대 아프간 및 대 이라크 전쟁 시 사우디의 기지사용 불허 등으로 양국간 관계가 다소 경색되는 조짐이 나타났음.
- 특히 동국 내에서는 이슬람 교조주의가 확산되면서 반미, 반서방 감정이 심화되고 있음.

3. 정치개혁 압력 증대

-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해 40세 이하 인구비중이 전체의 80%를 넘으며,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근접하던 1970년대에 비해 현재는 8,0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음. 고용창출은 필요한 수준의 1/3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식적인 실업률이 약 12% 수준으로 발표되었으나, 청년층 실업문제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됨.
- 높은 실업, 복지수준 축소, 독재체제 유지로 인한 국민들의 상실감 증대 등은 극단적 성향의 회교원리주의 저항세력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.
- 지난 5월과 11월 리야드에서 알카에다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에 대한 폭탄테러는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며, 안팎으로 동국의 정치개혁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음.
- 사우디 왕실도 치안불안 사태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지방의회 의원의 절반을 선거로 선출토록 한데 이어, 중앙의회에 해당하는 Majlis al-Shoura의 의사결정 권한을 다소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음. 일부에서는 수년 내 Majlis al-Shoura도 의석의 1/3 정도를 선거에 의한 선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- 보수적인 Ulema 집단과 사우디 왕실이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적어 정치개혁은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. 그러나 정치개혁이 높아가는 사회불안의 압력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동국은 상당한 체제불안 가능성을 안게 될 것으로 저망됨.

IV.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분야

1. 국제신용도 동향

- S&P(최초평가)는 2003년 7월 A+(안정적 전망)으로 평가하였으며, Moody's는 2003년 8월 Baa3에서 Baa2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음.
- 주요 ECA들도 적극적인 지원태도를 유지하고 있음.

- * 미 수은, NCM은 제한 없이 장단기 인수,
- * ECGD와 Hermes는 단기인수에 제한 없음.

- 주요평가기관 평가순위
 - * ICRG : 52/140('02. 11) → 41/140('03. 10)
 - * Euromoney : 39/185('02. 9) → 43/185('03. 9)
 - * I.I. : 45/151('02. 9) → 55/172('03. 9)
 - * OECD : 3등급('02. 10) → 3등급('03. 10)

2. 외채상환능력 양호

- 외채 리스케줄링 사례 없음
- 민간의 대외자산 규모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약 4,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며, 2002년 현재 공적 순대외자산 규모가 660억 달러에 이르는 순채권국임.
- 달러화에 대한 페그환율제 유지와 외채상환 등 대외거래문제는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됨.

V. 종합의견

- 세계최대 산유국이자 국제유가 조절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, 금년에는 유가호조로 제반 경제여건도 크게 개선되었음.
- 지나치게 석유의존적인 경제구조와 취약한 재정상황은 동국 경제가 안고 있는 해결과제이나,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한 막대한 대외자산과 양호한 외채지표를 고려할 때 대외지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음.
- 다만, 정치·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불안우려가 커지고 있으나, 극단적 원리주의 발호에 의해 현 왕정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별로 없음. 그러나 적절한 정치개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동국의 체제불안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.

【고 재 호】